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지각의 요가를 바바에 연결하고 있어라, 그러면 긴 여행을 쉽게 마칠 것이다.
- 질문:** 아버지에게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하느냐?
- 대답:** 육체의식을 버려야 한다. 육체의식을 갖자마자 너희는 죽으며 불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녀들은 자신을 바바에게 바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위축된다. 너희들은 이미 자신을 바쳤으므로 오직 한 분만을 기억해야 한다. 그에게 자신을 바치고 그의 슈리마트를 따라야 한다.
- 노래:** 오 밤의 여행자여, 지치지 말아라! 새벽의 목적지가 멀지 않았다.

옴 산티. 신이 말씀하신다. 신이 그의 자녀들에게 라자 요가와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기타에는 신 크리슈나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슈리 크리슈나가 온 세계를 마야에게서 해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아버지만이 와서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아버지를 자신에게 속하게 만든 이들이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 하고 앉아 있다. 크리슈나는 아버지라고 불릴 수 없다. 아버지는 지고의 거처(파람담)에 거하는 분인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영혼은 이 몸을 통해서 신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여기에 앉아서 설명한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며, 지고의 거처에 거한다. 나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이다. 나는 한 사이클 전에도 와서 지각의 요가를 지고의 아버지인 나에게 연결하라고 너희 자녀들을 가르쳤다. 그는 영혼들에게 말한다. 영혼이 몸에 들어오지 않는 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영혼이 없는 몸은 생명이 없다; 영혼은 살아 있는 존재이다. 자궁에 아기가 있지만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런 살아 있는 영혼에게 말한다. 그가 말한다: 나는 이 몸을 빌렸다. 내가 와서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돌아간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친다. 온 세계가 라자 요가를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지난 사이클의 사람들만이 라자 요가를 공부하고 있다. 지금 바바가 설명한다: 너희의 지각의 요가를 마지막까지 나에게 연결해라; 이것을 멈추지 말아라.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그런 다음 결혼 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60년이나 70년을 함께 살며, 일생 동안 오직 몸만을 기억한다. 아내는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라고 말하고, 남편은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몸이 없는 분과 약혼을 했다. 바로 몸이 없는 아버지가 와서 이 약혼을 주선한다. 그가 말한다: 나는 지난 사이클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자녀들을 나에게 약혼시킨다. 몸이 없는 나는 인간 세계 나무의 씨앗이다. 모든 사람이 신, 아버지가 이 인간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한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언제나 지고의 거처에 거한다. 지금 그가 말한다: 나를 기억해라. 여행이 길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피로해져서 지각을 완전히 요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마야가 그들을 무척 헤매고 다니게 하기 때문에 피로해진다. 어떤 이들은 바바의 손을 놓고 죽어 버리기까지 한다. 지난 사이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 남자가 죽으면 그의 미망인은 계속 그를 기억한다. 이 아버지와 남편은 그렇게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한다: 나는 너희 신부들을 데리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므로 지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머리 위에는 엄청난 죄의 짐이 얹혀 있으며, 그것은 오직 요가를 통해서만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요가는 끝에는 신랑인 아버지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게끔 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다른 누군가를 기억하면 불순해져서 그 죄에 대한 벌을 겪어야 한다. 이 아버지가 말한다: 오 지고의 거처로 가는 여행자들이여, 지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브라마를 통해서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를 세우고, 상카르를 통해서 모든 종교가 멸망하게

고취한다는 것을 안다. 지금 그들은 모든 종교가 함께 모이도록 계속 회의를 열고 있으며, 서로 통일해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종교가 하나의 의견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의견에서 하나의 종교가 세워진다. 만일 그 모든 종교들이 모든 신성한 미덕으로 채워지고 완전히 악덕이 없게 되면, 그들은 서로 우유와 꿀처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마의 왕국에는 모두가 우유와 꿀과 같았다. 동물들도 싸우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집집마다 전쟁이 있다. 주님과 주인이 없을 때 그들이 싸운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른다. 그들은 “당신은 어머니이자 아버지이며,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는 행복의 보물들을 받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지금은 행복의 보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비를 받지 못한다.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를 줄 수 있겠느냐? 오직 그들이 선생의 지시를 따를 때라야 자비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신이 모든 곳에 편재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누가 자비를 주고, 누가 자비를 받겠느냐? 자비를 받는 이와 주는 이, 둘 다 필요하다. 학생들은 먼저 와서 선생 곁에서 배워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비를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선생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너희들이 노력하도록 고취하는 이도 필요하다. 저 분은 아버지이며 선생이고, 또한 사트구루이기도 하다. 그는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선생, 지고의 사트구루라고 불린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매 사이클마다 이 창조의 과업을 수행하고 불순한 세계를 순수한 세계로 만든다. 바바는 세계의 전능한 권위자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위자의 왕국이 끊임없이 다스려질 것이다. 온 세상에는 락쉬미와 나라얀의 오직 하나의 왕국이 있었다. 그들은 전능한 권위를 가졌었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전쟁이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마야도 없다; 그것은 황금시대이며 은시대이다. 황금시대와 은시대, 둘을 낙원인 천국이라고 부른다. 모두가 노래 부른다: 라데와 크리슈나를 기억하고 천국인 브린다반으로 가라.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가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그것들을 기억할 뿐이다. 지금은 마야의 왕국이며 모두가 라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중요한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게 보이며 굉장한 칭호를 얻는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겉으로 용기를 보이고 선행을 하면 칭호가 주어진다. 어떤 사람은 철학 박사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들에게는 계속 이러 저러한 칭호가 주어진다. 지금 너희들은 브라민들이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바라트에 봉사를 하고 있다. 너희들은 신성한 왕국을 세우고 있다. 창조가 이루어지고 나면, 너희들은 태양 왕조의 왕과 왕비, 달 왕조의 왕과 왕비와 같은 칭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들의 왕국이 시작된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칭호를 받지 않는다. 거기에는 아무 것도 슬픔을 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슬픔을 없애거나 용기를 보이고 칭호를 받을 일이 없다. 여기에 있는 관습과 제도는 그곳에는 있을 수 없으며, 락쉬미와 나라얀도 불순한 세계에는 올 수 없다. 지금 이때는 순수한 신인들이 없다. 이것은 불순하고 사악한 세계이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과 지시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고귀한 지시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돌아다니는 동안 일부는 마야의 가시에 찢려 절름발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다: 언제나 슈리마트를 따라라. 너희 마음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너희는 기만을 당한다. 참된 아버지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너희가 참된 소득을 얻는다. 너희 자신의 지시를 따를 때 배가 가라앉는다. 많은 마하비르들이 슈리마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 지금 너희 자녀들은 구원을 얻어야 한다. 슈리마트를 따르지 않아서 타락하는 사람은 아주 크게 후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쉬브 바바가 다람라지의 역할로, 그 몸 안에 앉아서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브라마의 몸을 통해 너에게 그렇게 많이 설명했다. 내가 너를 가르쳤고, 너를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관한 편지를 써서, “저는 슈리마트를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슈리마트를 따르는 것을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주의를 받을 것이다. 가시가 너희를 찌르는 것은 오직 너희가 아버지를 잊을 때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구원을 주는 아버지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그들은 노래한다: 저는, 제 자신을 희생할 것이고, 저를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하느냐? “산야시에게 나를

희생하겠다, 또는 브라마, 비쉬누, 상카르에게 나를 희생하겠다, 또는 크리슈나에게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닌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에게 자신을 바친다. 너희들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는다. 아버지도 또한 너희 자녀들에게 그 자신을 바친다. 저 무한한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바치려고 왔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위축된다. 만일 너희가 육체의식을 가지면 죽고 불순해진다. 저 분 하나만을 기억해야 한다. 그에게 너희 자신을 바쳐라. 그 연극이 거의 끝나간다. 지금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의 모든 친구와 친척 등은 묘지 속에 들어갈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느냐? 이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영혼이 위로 올라가면 감로를 맛보지만, 아래로 세게 떨어지면 지위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왕과 왕비가 되는 것과 백성이 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과 장관을 보아라; 그들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노력을 해라. 어떤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면, 그는 단번에 불순해진다. 한 영혼이 슈리마트를 따르지 못하면, 마야는 즉시 그 영혼의 코를 잡고 도랑 속으로 던져 버린다. 밥다다에게 속한 다음에 반역자가 되는 것은 그에게 맞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다: 매 발걸음마다 조심해라. 마야의 때가 이제 끝나고 있고, 그래서 그녀는 너희들 중 많은 자들을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길은 조금 멀지만 지위는 대단히 높다. 만일 반역자가 되면 심한 벌이 있다. 다람라지 바바가 벌을 줄 때,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다. 그 다음 그것이 매 사이클마다 고정된다. 마야는 아주 강력하다. 조금이라도 바바를 소홀히 하면, 너희들은 죽어 버린다. 사트구루를 모욕하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이나 화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아버지를 모욕해서 벌을 겪는다. 매 발걸음마다 수백만 배의 소득이 있으니, 또한 수백만 배의 손실도 있다. 봉사를 통해서만 잔고가 늘어나고, 잘못되고 죄 되는 행동을 통해서만 또한 적자가 생긴다. 바바에게 모든 계좌의 잔고가 있다. 지금 저 바바가 너희를 직접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체 계좌의 잔고가 그의 손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버지는 어떤 자녀도 시브 바바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큰 죄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야기야에 봉사하는데 너희들의 뼈(모든 것)를 주어야 한다. 다디치 리쉬의 예가 있다. 이것도 역시 지위를 만든다. 그것이 아니면 백성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수준의 지위가 있다. 하인과 하녀들도 또한 백성들을 위해 필요하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위는 등수대로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기억의 순례에서 지치지 말아라. 마지막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도록 진정한 기억의 훈련을 쌓아라.
2. 참된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고 참된 소득을 벌여라. 너희 마음의 지시를 따르지 말아라. 사트구루의 명예를 실추시킬 일은 하지 말아라. 정욕이나 화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행위를 행하지 말아라.

축복: 서틀 리전에 살며 너희 자신을 강림한 화신이라 여김으로써 한결같이 높은 단계에 머무는 천사가 되어라.

아버지가 강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결한 영혼인 너희들은 저 위에서 이리로 내려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강림했다. 너희들은 서틀 리전과 비물질 세계의 주민이니 너희들의 지각이라는 발을 땅에, 즉 육체의식의 진흙 위에는 디딜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천사들의 발은 언제나 하늘에서 보인다. 이렇게 너희들 모두 하늘 (서틀리전)에 사는, 변함없이 고귀한 단계에 머무는 강림체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행하는 단계에서 날아다녀라.

슬로건: 자아변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자녀들만 아버지에게서 축복이라는 축하를 받을 수 있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